2019년 12월 13일 자 진짜 최종 2019.12.12 7:13 AM 페이지18 001HQ-CTP-cmyk 2438DPI 175LPI

JBM 10기, 2019 주얼리 데모데이 성황리 개최

"스타트업 주얼리 브랜드들과 유통사 및 투자자들의 만남"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규현, 이하 월곡재단)이 지원하고 미래주얼리연구소(원장 구창식)에서 위탁 진행하는 'Jewelry Brand management(이하 JBM)' 10기 주얼리 브랜드 매니저들이 스타트업 주얼리 브랜드의 판로개척 및 브랜드 투자유치를 위한 주얼리 데모데이를 지난 12월 10일 드림플러스 강남점 B1층 행사장에 개최했다.

주얼리 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주얼리 데모데이는 1년간 JBM에서 브랜드 컨설팅을 거친 스타트업 주얼리 브랜드들이 기획안을 공개함으로써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 유통사, 투자자와의 연결을 통해 초기 판로 개척 및 브랜드 투자유치를 위해 진행됐다.

롯데, 한화, 갤러리아, 현대 등 대형 유통사 외에도 주얼리 유통사, 패션 유통사, 투자자, 주얼리업체,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는 익숙함과 낯섦 사이의 각도,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 '45도(사십오도)'·남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닌 진정한 나의 가치를 찾는 브랜드. 오직 단 하나, 'SEULEMENT(셀몽)'·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로맨틱 캐주얼 디자이너 주얼리 'marimello(마리멜로)'·보통의 일상 그 안에 특별함을 찾는 센서블 스테이트먼트 주얼리, 'TIAM(티암)' 등 총 4개의 브랜드가 개성 넘치는 컨셉 기획안을 발표했다.

또한 패션주얼리부터 골드주얼리까지 각 브랜드만의 색으로 풀어낸 주얼리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미팅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 입점을 확정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주얼리데모데이를 시작으로 4개의 브랜드는 다양한 주얼리 플랫폼에 입점예정이다. 오는 12월 18일부터 25일에는 파르나스몰에서 크리스마스 기획 판매전을 진행하고 2월에는 백화점 팝업스토어 판매전을 통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소비자들과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주얼리데모데이를 진행한 JBM 과정은 주얼리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교육을 통해 국내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장학교육이다. 매년 주얼리산업 취업 및 주얼리 브랜드 창업을 꿈꾸는 인재를 선발하여 1년 동안 브랜드기획, 디자인개발, 제품생산, 온라인몰 운영 및 판매, 브랜드 패키지제작, 브랜드 룩북제작, 졸업 후 유통사 연결을 통한 판로지원, 취업지원 등 주얼리 브랜딩 전 과정 컨설팅 및 교육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주얼리데모데이 및 JBM과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미래주얼리연구소로 전화문의하거나 재단 홈페이지(http://w-je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문의: 02-744-3331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오브제, '얼랏제이'

-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원탐방(5) -

"Jewelry With Aura."

커스텀 주얼리 브랜드 얼랏제이(A LOT J)의 키워드이다. 주얼리는 가장 작은 예술작품이며 예술작품에 고유한 아우라가 있듯 주얼리에도 아우라가 깃들 수 있다는 얼랏제이 전유림 대표는 예술작품처럼 변치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가치를 주얼리에 담고자 한다.

전유림 대표는 시계 제조 관련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로부터 "제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어린 시절부터 '부가가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 고민에 대한 결과는 '얼랏제이'. 기획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두 아우르는 주얼리 브랜드였다. 브랜드 명 '얼랏제이'의 'A LOT'은 어떤 영역, 구역을 뜻하고 J는 전유림의 J이다. 디자이너 전유림의 영역이라는 뜻으로 전유림 대표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얼랏제이'의 시작은 평범하지 않다.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중소기업청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브랜드가 형성됐다. 사업계획서와 전문심사위원 면접을 통해 총 두 번의 정부지원을 받았고 정부지원을 받음으로써 주얼리 기획과 디자인, 제작, 판매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기본적으로 주얼리는 예뻐야 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훔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주얼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브랜딩 기반을 다져온 그녀는 감각과 센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주얼리를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얼리는 작은 디테일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금만 어긋나도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을 듣다보니 작은 디테일은 마음가짐이 좌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얼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대하는 태도. 그녀는 '초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많은 주얼리를 보고 접하다 보면 주얼리에 대한 가치나 의미가 희미해진다. 고객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일에 치이다보면 주얼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겐 단순한 현금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처음 주얼리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 고객 마음에 딱 맞는 주얼리를 디자인 했을 때의 만족감, 고객의 삶에 중요한 발자취인 주얼리에 잠시 동행할 수 있다는 기쁨.

"주얼리는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오브제입니다."

'초심'을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말하는 전유림 대표는 본인의 마음가짐처럼, 예술작품처럼 오래도록 지속되는 가치를 지닌 주얼리를 만들고자 한다. Only One이 아닌 Only You를 위한 특별한 주얼리.

주얼리를 예술작품으로 바라보며 가치있게 만든 그녀의 주얼리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에게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해줄 것이다.

얼랏제이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60길 23에 위치해 있으며 홈페이지(https://www.alotj.com)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a__lot__j)를 운영하고 있다.

/ 문의: 02-545-9615

강민경 기자